

## 아시아 산업보건협회 총회 및 학술대회의 이모저모

曹 圭 常  
<가톨릭의대학장·본협회부회장>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본 동경 「프린스」와 「그랜드」 두 호텔에서 열린 제 8차 아시아 산업보건협회 총회와 학술대회에 한국에서는 대한산업 보건협회 최영태 회장을 비롯 필자와 가톨릭산업재해병원 원장인 이승환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차철환교수, 대한산업보건협회 마산서비스센터 김응남소장 등 대거 12명이 참가했다.

주최국인 일본을 위시해서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홍콩, 비올빈, 이란, 그리고 태국등 11개국에서 총 23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28일 아침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조직위원장 Mr. Maeda의 환영사에 이어 일본 노동청대신 Mr. Fujinaw, 국제노동기구의 Dr. Brown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Dr. Batawi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아세아산업보건협회의 창립자인 故 Dr. Teruoka의 미망인에게 그 공로를 표창하는 감사패가 대회장의 명의로 전달되었다.

특별강연은 국제산업의학회의 전회장이었던 Dr. Fourssman (Sweden)이 하였고 이어서 본 대회장인 Dr. Kubota의 일본의 연대적으로 본 직업병과 사회적배경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Forssman은 특별강연에서 “산업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천하고 있고 노동인구와 질병의 양상도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한 예방사업, 진료, 제할을 위한 활동은 모든 분야 특히 정신적, 인간공학적 면에 있어서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장기적인 산업보건의 교육과 훈련이 요망됨

을 역설하였다.

Kubota는 일본에 있어서의 산업보건 역사의 변천을 3기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이 속에서 직업병들의 발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를 상세히 이야기 하였다.

일본의 산업보건은 1869년부터 1926년 까지를 제 1기(명치대정시대)로, 1927년부터 1945년까지를 제 2기(소화시대에서 2차세계대전말까지)로 그리고 1946년 이후를 제 3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였는데 제 1기에 있어서의 직업병은 주로 광산에서의 폐염, 안구진탕증 weil씨병, 십이지장충, 건설업에 있어서의 잠함병, 면방직에 있어서의 하지정맥류, 열중증, 폐결핵, 성냥공장에 있어서의 황인중독으로 온 하악골의 괴저, 깡통제조업에서의 직업성난청, 군대에서의 열중증이 중요한 것이었고 제 2기에서는 연, 수은, 비소 등 중금속중독과 일산화탄소, 염소, 황산가스, 황화수소, 유기용제등의 공업중독과 각종 피부질환, 규폐, 열중증, 용접공의 안질환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제 3기에 와서는 가내공업에서의 Benzen 중독, 다이나마이트 공장에서의 Nitroglycol 중독, 광산발파작업에서의 일산화탄소중독, 임업에서의 진동작업으로 인한 백엽증, 가스탱크작업자의 연중독과 각종 발암물질 취급자에서의 직업성암(coal tar chrome, 비소, Benzidine, vinyl chloride 등)을 열거하였다.

4일간의 학술대회에서는 77개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을 부분별로 보면 산업보건사업의 조직을 다룬것이 16편, 소음과 난청에 관한 것이 6편 인간공학 문제가 8편, 산업보건 간호사업이

5편, 직업성으로 보는 손목(頸腕) 장애 4편, 결핵과 전염병 4편, 산업재해예방 6편, 진폐증 7편, 공업중독과 피부질환 12편, 위생공학 4편, 농촌의학 5편으로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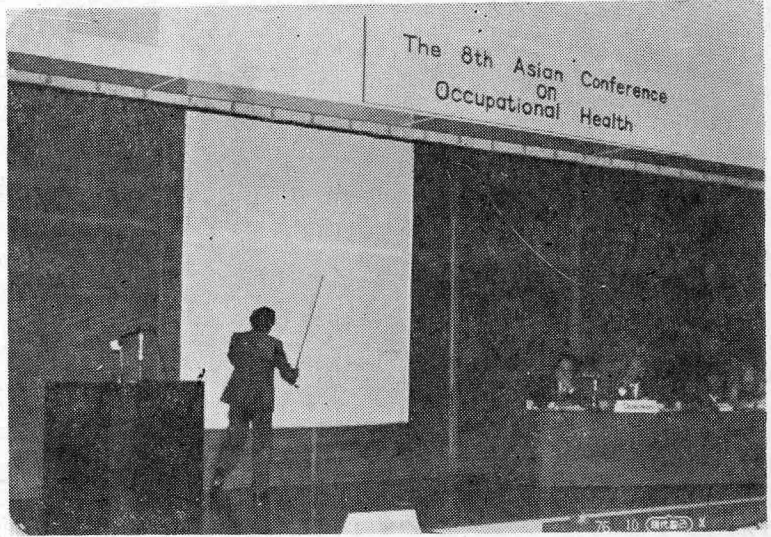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산업보건사업 3편, 소음성난청 3편, 진폐증 3편, 연중독 1편, 등 11편의 연계를 발표하였으며 진폐증과 연중독의 업적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산업보건 사업은 각 지방에서 생긴 산업위생협회가 법인체로서 자율적으로 건강진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보건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훌륭한 국립노동 위생연구소가 있고 산업보건사업의 중앙적인 역할은 노동재해방지협회가 맡고 있었다. 또 최근에는 산업의과학도 창립되었다 한다.

호주에서의 산업보건사업은 사회의료보장제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하여 기타 아세아 각국에서는 이렇다할 조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한국의 산업보건사업 특히 정부 뒷받침하의 사용자 투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산업보건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또 근로자의 보건에 있어서 후진국들은 아직 전염병과 영양, 가족계획등이 큰 문제인데 반하여 일본, 호주등에 있어서는 공업의 기계화에 따른 일련작업에서 오는 정신신경계 질환들이 중요한 관심거리에서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아세아 각국의 산업보건사업은 그 나라의 산업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따라 양상이 달랐지만 현대국가에 있어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이는 사용주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에는 선진국이나



◇ 사진설명 : 韓國代表의 研究論文發表光景. 日本東京에서 열린 이 學術大會에서 韓國은 道합 11例의 논문을 發表하여 많은 關心을 끌었다. 同總會의 次期大會는 1979年 서울에서 열리게 된다.

개발도상국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 각국간의 공통과제로서 등장된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의 산업보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국제간의 정보교류와 학문적인 협조가 요망되며 이러한 뜻에 있어 아세아산업보건협회의 설립취지가 산업보건을 통하여 아세아 각국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향상시키며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아세아산업보건 협회의 존재의의가 크다 하겠다.

금번 아세아산업보건협회 총회에서는 회장으로 최영태박사를, 사무총장으로는 본인을 선출하여 차기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다.

고도로 산업 경제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보전은 더우기 각국에서 큰 관심사가 되어 있으므로 차기 국제 회의의를 개최하게된 우리로서는 더 한층 책임을 느끼며 이 분야를 전공하는 동학자들의 협력과 분발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